



서른두번째 이야기

Blessed BEE KOREA 2020!

[2020 On-Line Blessing BEE Korea]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가 가득한 한해였지만, On-Line 공간에서는 만남과 세미나가 계속되었고 우리의 시선은 우리 내면과 하나님을 향하였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BEE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On-Line 2020 BEE Blessing Korea’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면서 12월 밤을 채워갔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으로 시작된 BBK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On/Off-Line 기도모임을 통해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사역을 담당하며, 사역의 현저화, 충성된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BEE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박기성 목사님의 기도로 감사의 축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BEE를 축복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축하 인사도 있었다.



조문상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졌다. 2021년 표어 ‘하나님의 친밀함에 따라(As Intimate as God in Three Persons, 요17:21)’를 소개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 하나님의 친밀함과 같이 BEE가 2021년에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친밀함,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정의 친밀함, BEE 공동체 내의 친밀함, 이웃과의 친밀함, 선교지와의 친밀함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셨다. (*2021년 비전 선포 내용은 신년호에서 확인)

그리고 21년 전, 조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주셨다. 송실대 연구실에서 아침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과연 선교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자녀교육과 재정적인 걱정으로 몇 번의 반복이 있었지만, 선교사로의 부름을 거절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 때 후회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분명 후회할 것 같아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1999년 선교사로 나가면서 재정의 어려움보다는 족함을 알게 하셨고, 가장 큰 걱정이었던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크리스천 학교로 인도하시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은 비엔나 공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BEE 사역을 곳곳에서 번성하게 하심으로 사역을 되 돌아보면서 안도감과 감사함과 만족감과 친밀감을 느낀다고 고백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안도(히11:24-26)와 직분을 맡겨 주심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딤후1:12)을 감사하며 사역을 하면서 값진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졌음을 나누어 주셨다.



열방에는 아직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BEE 사역 특성상 BEE 선교사로 나간다면 바로 사역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영적 교류와 배움의 시간 단축, 인도자로서의 경험, 다양한 선교사 제도 등의 이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며 부르고 계시며 선교사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하셨다.

그리고 BEE 사역에 헌신하고 훈련과정을 마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역자 임명'이 있었다. 1명의 사역자, 5명의 훈련 사역자, 7명의 예비 사역자를 세워주시며 감사드리며 사역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이어졌다.



강병훈 장로 부산 성지교회 박은미 권사 싱가포르 생명의말씀 교회



이인철 목사 스마일 교회 전병태 목사 울산 예광 교회 하현숙 전도사 영안 교회



김진영 권사 온누리 교회(양재) 김기순 집사 온누리 교회(서빙고)



민형기 집사 방주 교회 안화연 집사 방주 교회 이원탁 집사 온누리 교회(부천)



Bien Amie-Rwanda ISC-SKKU Isaac-Ethiopia ISC-SKKU



그리고 드디어 '기도 테이블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다. 올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선교지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 테이블 가족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며 축복하는 시간이었다. 1위는 공동으로, 베트남 테이블과 서남아 테이블이다.



베트남의 'BEE날자, 가을 하늘을! 날아서 비엠티까지!'

서남아의 '난.감.하.네'

난-난세에도, 감-감사하며 풍성한 사랑의 마음, 하-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위해, 네-네하고 반응하며 두 손을 모으는 서남아 테이블 영원한 식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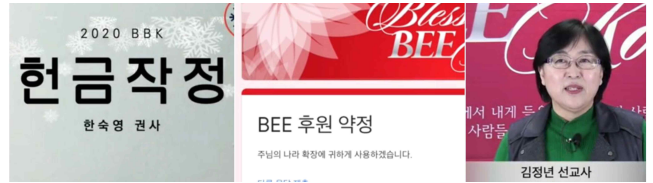


루체 특순이 시작되었다. 정말 특별한 순서였다. 온라인으로 류지혜 사모님의 지휘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선율이 퍼지면서 루체 식구들이 파트별로 하나하나 모여 '주 나의 피난처'를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27명이 함께 만들어 내는 천상의 화음은 영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게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루체의 아웃리치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조문상 선교사님의 2021년 주제 선포가 이어졌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 추구'이며, 두 번째는 부부, 자녀, 부모, 동기간의 '가정에서의 친밀함 추구', 세 번째는 BEE 공동체 전체와 테이블 간의 '공동체와의 친밀함 추구', 네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 이웃과의 친밀함 추구', 다섯 번째는 선교사와 현지인의 '선교지와의 친밀함 추구'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BEE 가족이 '나의 실천사항'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2021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BEE '후원 약정'하는 시간을 통해 한 해 동안 물질로, 기도로, 섬김으로 BEE 사역을 후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BBK 선물로 가나의 김용달 선교사님 딸 예지의 그림과 이성애 권사님의 손글씨로 만든 달력, 기도 노트, 2020년 타임캡슐이 우편으로 BEE 가족의 품으로 전달될 것이다. 기대가 가득하다. 주권육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가 된 2020 BBK는 비록 영상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더 큰 감사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 사역에 대한 헌신이 2021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한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꼭 그것이 알고싶다 선교지 남미 🇨🇴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대표 화가]

페르난도 보테르(Fernando Botero 1932-)는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화가로서 부풀려지고 독특한 양감이 드러나는 기법으로 사물을 풍부하게 그려 풍자한다. 4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본 충격으로 2년 후 그린 첫 그림이 '말 탄 아이'다.(좌) 하단의 상복 부모가 나온다.

지붕 위 총알 맞는 그림은 동시대 고향 인물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1949-1993)로, 세계 최초, 최대 코카인 밀수자로서 비행기 격추, 대법원 습격, 납치살인 등으로 악명이 자자하고 나르코스 등 온갖 마약 액션 영화와 관련된 인물이다.(우)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코로나 19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있는 그곳이 경건의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강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 12월 14일(월)-2021년 1월 2일(토) 오전 6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가 CGNTV,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12월 19일(토)부터 3주 동안 BEE 기도모임은 7시에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요!!
4. ‘The Balance 균형의 영성’, 쿼란 출판사, 강문종 장로님 책이 출간되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추천!
삶과 신앙생활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